

순천정원박람회장 모래 밀반출 파문

터파기 공사중 업체가 몰래 빼돌려

현장상주 공무원들 묵인·방조 의혹

2013 순천만 국제 정원박람회장 조성과정에서 나온 모래가 밀반출된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3일 순천시에 따르면 순천시내 풍덕동 일원에 2013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가 열릴 박람회장 터파기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나온 모래를 현장 업체가 몰래 외부로 실어 낸 사실이 최

근 적발됐다.

시는 지난해 11월 25t 트럭 2000대 분 2만7000m³로 추산되는 양의 모래가 발견돼 이중 30대분의 모래를 현장 하도급사 직원들이 불법으로 빼돌린 것을 최근 확인하고 전량 회수했다.

하지만 당시 박람회장 조성공사 현

장에 순천시 공무원이 상주하고 차량 출입을 기록하는 계근대와 CC(폐쇄 회로)-TV 등이 있어 밀반출 사건이 공무원들의 묵인·방조 의혹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에 대해 YMCA, 환경운동연합, 경실련 등 순천지역 7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순천 행·의정 감시모니터단은 3일 기자회견을 열고 “공사 현장에 계근대와 폐쇄회로 TV 등이 설치돼 있어 공공연한 불법 행위가 이뤄지기 힘든 여건임에도 모래 밀반출 차량이 드나들면서 4.5~10km 떨

/동부취재본부=예정열기자 jyj@

월출산 국립공원사무소

무재해운동 선포식

국립공원관리공단 월출산 국립공원사무소(소장 정장훈)는 지난 2일 새해를 맞아 안전한 사업장 문화를 위한 무재해운동 선포식을 가졌다.

월출산 사무소는 안전보건 경영시스템(KOSHA 18001) 인증기관으로서 무재해운동 기간을 지난 12월 19일부터 2013년 12월 19일까지, 목표 시간은 14만9760시간으로 설정했다.

정장훈 소장은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로서 직원들의 안전한 근무환경 개선 및 탐방객 안전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며 “전 직원이 한 몸 한뜻으로 무재해운동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중부취재본부=이상휴기자 lsh@



“FTA 비준 폐기하라”

(사)한국농업경영인 전남도연합회(회장 김성일) 회원들이 2일 전남도청앞에서 한·미 FTA 국회 비준 폐기와 쌀값 보장을 촉구하는 치량시위 투쟁선포문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회는 2일부터 4일까지 도내 시·군을 돌며 치량시위를 벌인다.

/한국농업경영인 전남도연합회 제공

■ 새 얼굴

“효율적 물관리 고품질 수돗물 공급”

신송운 K-water 전남지역본부장

“현장밀착 경영을 통해 광주·전남지역의 물공급 서비스를 고도화하고, 영산강과 섬진강 수계의 효율적인 물관리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최근 취임한 신송운(55) K-water 전남지역본부장은 “국책 사업을 통해 새롭게 태어난 승촌보와 죽산보의 철저한 관리와 운영으로 영산강 살리기에 심혈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이어 “영산강과 섬진강의 통합



물관리 기반 구축을 통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고품질의 수돗물을 각 가정에 차질없이 공급하겠다”고 강조했다.

완도 출신인 신 본부장은 광주 고와 전남대 법대를 졸업했으며 지난 1985년 K-water에 입사해 감사실 부장, 수도사업처장 등을 역임했다. /송기동기자 song@

해남군 교부세 증가액 전남도내 1위

올 2059억원, 작년보다 307억원 늘어

해남군이 중앙정부로부터 지원받는 지방 교부세(보통 교부세)가 도내에서 가장 많은 증가액을 보였다.

3일 해남군에 따르면 올해 지원받는 지방교부세가 2059억원으로 지난 해 1752억원보다 무려 307억원이 늘어나며 도내 22개 시·군중 가장 많이 늘어났다.

군이 확보한 국비는 보통교부세 2059억과 분권 교부세 44억, 국고 67건 629억 원을 포함해 모두 2722억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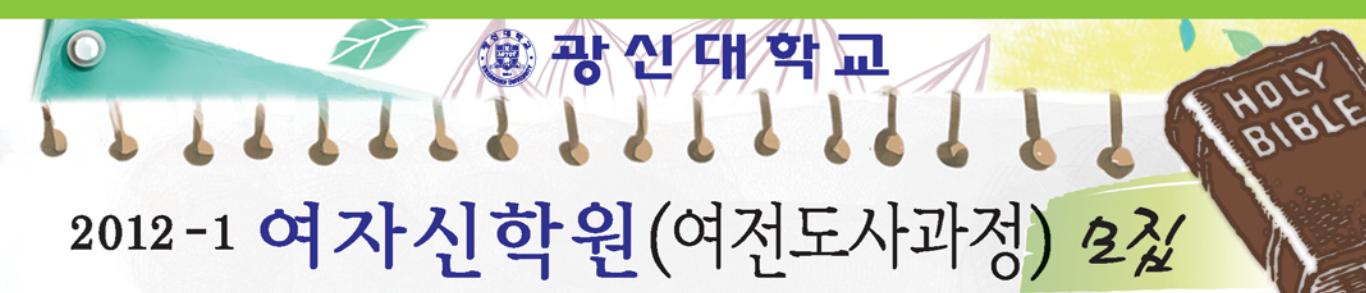
군은 녹색농촌 체험마을 조성과 어촌 종합개발 사업, 겨울배추 가공기

반 구축, 독립운동 역사체험마을 조성사업, 회원면 일반산단 폐수 종말처리장 시설 등에 투자해 나갈 계획이다. 그동안 군은 지방교부세 확보를 위해 공공시설물의 변동내역을 철저히 관리하고 보통교부세 신정에 필요한 시설 현황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왔다.

해남군 관계자는 “올해 지방교부세가 가장 많이 증가한 만큼 친환경·수·축산업 브랜드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개발사업 등 현안사업에 집중 투자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서부취재본부=박희석기자 dia@

2012년 1월 여자신학원(여전도사과정) 모집



■ 지원자격 : 세례교인인 자(학력제한 없음)

■ 수업형태 : 2년(4학기) / 주 3일 / 아간제

■ 교육일시 : 2012년 3월 5일 개강 / 한 학기 15주 / 매주 월·화·목요일 19:00 ~ 21:55

■ 수 강 르 : ① 등록금 : 700,000원(한 학기당)

② 입학금 : 50,000원

■ 제출서류 : 입학원서(사진 3cm×4cm 2매) 및 담임교역자추천서 1부 ※ 전형료 : 5,000원

■ 혜 택 : ① 매기기 신청자에 한하여 교회봉사장학금 지급

② 본교 종양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카드학생증 발급(학생에 준하는 열람 및 대출기능)

여전도사로서의 직무 수행에 필요한 일반 교양과목과 성경 및 신학과목은 물론 상장학, 심방학 등 당회장을 보필하는 여전도사로서 인격을 연마하는데 목적이 있음.

2012-1 “가정폭력상담원” 교육

■ 교육일시(총100시간) ▶ 월, 화, 목, 금 오후 6:00~

■ 모집대상 (각 항에서 1개만 해당되면 가능)

①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

②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진 자

③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단체 임직원 또는 공무원으로 가정폭력방지업무에 3년 이상 종사자

④ 이주 노동자 및 외국인 관련 단체 및 시설(외국인보호)에서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⑤ 장애인 관련 단체 및 시설(장애인보호)에서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본원의 가정폭력상담원 과정자 중 성폭력상담원 자격 취득 희망자

별도비용과 추가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 광신대학교 한국가족치유상담교육원

500-710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택지 소로 36 교학처 (062)605-1112, 1063

기초단체장 새해 청사진

김일태 영암군수

“농산물 가공·식품산업 집중 육성”

“군민과 함께 소통하고 화합하는 공동체 조성을 통해 ‘희망 군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김일태 영암군수는 “임진년(壬辰年) 새해에는 특히 지난해 이뤘던 백년대계(百年大計)의 초석을 기반으로 군민들에게 행복과 희망을 드릴 수 있는 영암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새해 포부를 밝혔다.

군은 녹색 생명농업 육성과 미래향적 성장기반 마련, 소통과 화합의 공동체 조성 등 3대 군정 주간전략과 함께 6대 역점과제를 새롭게 확정했다.

한·미 FTA 비준안 처리에 따른 농·축산업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체계적인 영향분석과 분야별 세부대책 마련에 돌입했다.

친환경농업 생산단지 확대와 함께 전통 밭효식품 산업화, 마을단위 우리 어머니 반찬사업을 추진해 농산물 가공·식품산업을 역점 육성한다.

영암 굿점 대봉감 품질관리 및 부가가치화 육성사업에 오는 2014년까지 총 30억원을 집중 투입할 계획이다.

군민이 열원하는 월출산국립공원 삽작(케이블카) 설치가 지난 12월 우선 사업으로 선정돼 새해에는 설치를 위한 행정절차 이행 등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또 영암의 랜드마크인 ‘기(氣)찬 랜드’에 홀토 스파와 실내 물놀이장 시설을 추가 확장하고 산수 유자 ‘영암 알리랑’, 예산강 역사문



대봉감 품질관리 30억 투입

다문화가정 정착 적극 지원

미암산단 조성 연차적 추진

화체험 전통 뱃길복원, 주거변천사 야외 전시장, 한옥건축 박람회 등 주요사업 등을 내실있게 준비해 관공산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적극주진해 나갈 계획이다.

김 군수는 “6년 연속 복지분야 최우수 군에 선정된 만큼 건강한 행복 복지와 사회적 약자층을 위한 생활안정에도 힘을 모아 군민과 할 것”이라며 “여성사회 참여 능력배양과 다문화가정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아동 드림스타트 센터, 공립 보육시설 2호를 신설할 것이다”고 밝혔다.

군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탄탄한 기반시설을 강화해 나간다.

영암읍과 덕지면 일원에 조성될

14만8000m² 규모의 영암 농공단지가 식품산업단지로 특화 조성되고 200만m²의 미암 일반산업단지 조성도 연차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군은 미래성장 기반을 위한 권역별 개발과 주거환경 개선 등 체계적인 정주기반 마련에도 힘쓸 방침이다.

대불대 주변 관리계획 변경과 영암읍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 수립, 서영암 신발전 종합계획을 마련하고 권역별 농촌마을 종합개발도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학산면 낙지읍식 명소거리 조성과 5일시장 정비, 면소재지 마을 종합 개발사업을 조기에 마무리하고 주택개량 등 주거환경 정비와 공동이용시설 및 친환경 휴식공간도 확대·조성한다.

이와 함께 군민이 참여하는 쌍방향 자치행정 실현과 우수인재 육성을 위한 선진자치 교육 기반도 확대한다.

이밖에에도 인재육성의 큰 발판으로 자리잡고 있는 군민 장학회의 운영으로 장학금 지원, 해외 문화체험 실시 등 다양한 교육사업을 펼쳐나간다.

김일태 영암군수는 “7만 군민의 무한한 성원과 관심으로 임진년(壬辰年) 새해에도 오직 지역발전과 군민들의 행복지수가 무한할 수 있도록 군정 주진에 은힘을 쏟아낼 것이다”고 말했다.

/중부취재본부=문병선·이상휴기자

고흥 용동지구 ‘연안 유휴지 휴양지’ 선정

2016년까지 150억 들여 테마공원·캠핑장 등 조성

고흥군 도덕면 용동지구가 최근 국토해양부 주관의 ‘연안 유휴지 활용 휴양지’ 사업으로 확정됐다.

고흥군은 “올해부터 오는 2016년까지 5년간 총사업비 150억원의 국비로 해양친수 테마공원, 오토 캠핑장, 텐트촌, 해양 수련시설 등 기반시설을 구축함으로써 체류형 해양휴양단지 조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3일 밝혔다.

군은 올해 국비예산 10억원을 확보해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실시하는 등 2016년까지 연차적으로 국비 150억원을 들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이와 연계한 해양레저 문화센터, 고흥만 수변 노동공원조성, 동계 전지훈련 시설과 콘도·펜션 등 숙박시설을 민자사업으로 적극 유치해 복합 해양문화 레저단지로 조성할 계획이다.

이어 군은 이번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지금까지 사업 대상지에 들어있는 임야 등 10만2000m²의 토지를 군유지로 매입했다.

군은 이번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경우 완주·순천간, 목포~광양간 고속도로 개통(2012년 5월 예정)으로 대도시와의 접근성이 대폭 향상돼 국민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국민여가 휴양지로 적극적으로 급부상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부취재본부=주자중기자 gijju@

친환경 2012년 태양광 발전 주택보급 실시!

아직도, 전기를 돋내고 사용하십니까? 주택용 태양광발전 선착순 한정 접수

태양광이란(Sanyo Module)?

반도체 기술을 이용하여

태양빛으로 전기를 생산하는 것을 말합니다.

보조 50% 확정!!

태양광시스템이 적용된 주택의 특징</